

# 이현중, 中 격파 선봉장... “오늘도 V”

월드컵 亞 예선 1R 원정 승리 원주서 12년 만의 2연승 도전 높이에 외곽포 무장 기량 탄탄 수비도 적극 가담 에이스 역할 한국 남자농구 대들보로 우뚝

원정에서 중국을 상대로 3년 만의 승리를 거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이번엔 홈 코트에서 12년 만의 중국전 2연승에 도전한다.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한국은 1일 오후 7시 원주 DB프로미 아레나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중국을 80-76로 물리쳤다.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치른 2022 FIBA 아시아컵 예선 1차전 이후 3년 4개월에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쾌재를 불렀다.

한국의 '새 에이스'로 떠오른 이현중(나가사키)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역대 최다인 9개의 3점을 쏜 것을 포함해 33점을 쏟아내며 14리바운드를 몰아치며 승리의 주역으로 나섰다.

한국은 내친김에 중국전 2연승에 도전한다. 이번에도 승리한다면 홈 코트에서 12년 만에 중국전 승리를 기록한다.

한국은 2013년 5월 인천에서 치러진 동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을 이긴 바 있다. 대표팀은 여세를 몰아 3개월 뒤 필리핀에서 열린 FIBA 아시아선수권대회(현 아시아컵) 예선 1차전에서도 중국을 물리쳐 2연승을 기록했다.

이후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번도 연승을 올리지 못했다.

높이에 외곽포를 겸비한 데다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는 이현중이 2차전에서도 제 기량을 보여준다면 한국은 중국과 또 한번 대등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차전에서 13점 7어시스트를 올린 이정현(소노), 공격과 수비에 두루 능한 안영준(SK) 등 동료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216cm의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센터 지우치, 208cm 포워드 장전민 등이 버티면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버거울 상대다.



한국 이현중(오른쪽)이 7월13일 경기도 안양정관장아레나에서 열린 2025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물 먹고 돌아왔어요” 페라자, 한화 복귀

트리플A서 뛰다 2시즌 만 컴백... 외인 투수 에르난데스도 합류

외야수 요나탄 페라자(27·베네수엘라·사진)가 2시즌 만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로 돌아온다. 한화는 새 외국인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26·베네수엘라)도 영입했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2024시즌에 함께 했던 페라자가 복귀한다”며 “페라자와 총액 100만 달러(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옵션 1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스위치히터 외야수인 페라자는 2024년 한화 소속으로 12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5, 24홈런, 70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50을 올렸다.

2025년에는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138경기에 나서 타율 0.307, 19홈런, 113타점, OPS 0.901을 기록하며 샌디에

이고 마이너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한화 구단은 “2025시즌 페라자를 관찰하며 수비 능력이 좋아지고, 양질의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생산한다는 걸 확인했다. 일본프로야구 구단과 영입전을 벌인 끝에 페라자와 계약했다”며 “채은성, 노시환, 강백호, 문현빈과 함께 페라자가 타선 강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른손 투수 에르난데스는 총액 90만 달러(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65만 달러, 옵션 15만 달러)에 사인했다. 한화는 “에르난데스는 최고 시속 156km, 평균 시속 150km 이상의 싱커형 패스트볼을 구사하는 스위치히터 유형의 투수”라며 “준수한 투구 감각으로 패스트볼 외에도 완성도 있는 슬라이더와 체인저를 갖췄다. 선발투수로 활약하며 최근 2년 동안 100이닝 이상을 던졌다”고 소개했다.

## 12경기 무패 행진 뮌헨 동점골 힘 보탬 김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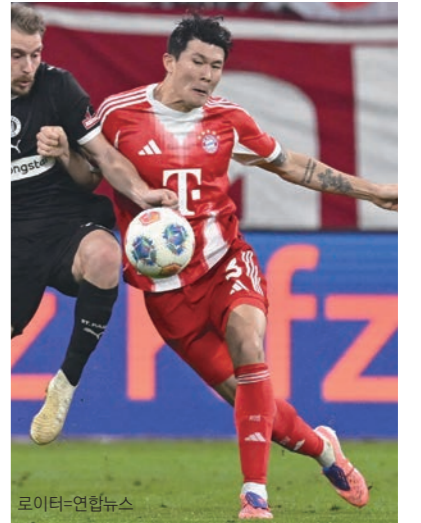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김민재(사진)가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리그 무패 행진에 힘을 보탬다.

뮌헨은 지난달 29일 오후(이하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킥오프한 2025-2026 독일 분데스리가 12라운드 장크트 파울리와 홈 경기에서 3-1로 힘겹게 역전승했다.

뮌헨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2경기 무패(11승 1무-승점 34)로 18개 팀 중 1위를 질주했다.

반면 선제골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장크트 파울리는 승점 7(2승 1무 9패)로 강등권인 17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민재는 요나탄 타와 뮌헨의 중앙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77분을 뛰고 1-1로 맞서 추가 골이 필요했던 후반 32분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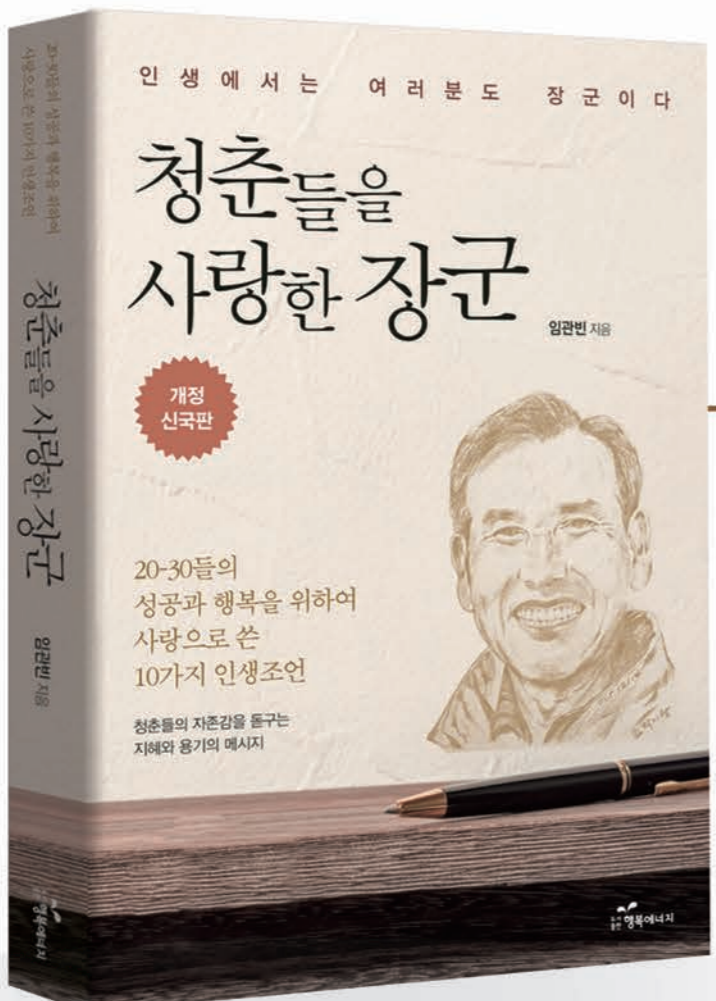


이날 일방적 우세가 예상됐던 뮌헨은 경기 시작 6분 만에 일격을 당했다.

뮌헨의 미드필더 왼쪽에서 공을 빼앗은 장크트 파울리의 마티아스 라즈가 김민재 뒤 공간으로 패스를 내주자 안드레아스 하운튼지가 골 지역 왼쪽으로 쇄도해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반격에 나선 뮌헨은 전반 23분 레나르트 카를, 35분 팀 비소프의 슈팅이 연거푸 골대를 맞아 땅을 쳤다.

#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